

백영숙 한국여성개발원 이사장

제118대 총회에 40명의 여성위원이 진출하면서 2004년도 '여성정책리더십'으로 기록한대로 내년 3월2일 유엔에서 여성들이 반세기 동안의 숙원이었던 호국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삼개발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시점에서 '1세대 총선에서의 여성 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2세대 총선을 통해 여성정책리더십 운동의 지평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찾아보고 보는 책의 출판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성이라는 처음으로 여성주체로서의 의식 비중에 부응한 수치는 13.4%를 차지했으며, 이는 물론 비록 세계 평등지에는 못미처지만 세계여성으로 비추어 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앞으로 유엔에서 여성위원이 두배의 여성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돌아볼 만한 사실로서 인구절반의 문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다고 본다. '호국세 폐지'와 '삼남세 폐지'가 이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여성의 정책제정운동의 지평이 이만큼이라도 넓혀졌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한다. 여성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전격적인 치밀한 작업은 물론이긴 하지만, 제118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보여준 활동상은 새로운 지도로서 지평의 넓이를 예감할 수 있다. 322명의 여성단체들이 정부에서 정책관련 제로리 관행 개혁에 주력한 '한국여성연대'의 범국민적 합의로 이해당 50%와 의회당 30%의 합동제 실시에 대비하여 100여명의 여성후보를 배출하여 각지방에 공개후보한바 있는 80여명의 여성 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여성 여성 네트워크'의 전격적인 활동이 주효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후보당선운동의 주력가 운동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한국여성개발원 운동본부'의 활동이 후진위에서 이를 위한 주력적인 협력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바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열렬한 같은 여성위주와 부대 정책추진의지가 북돋아져서 제118대 총회에 여성위원들을 포함한 2만여명의 여성위원들이 진출하게 되고 정책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은 이 운동의 당위이다.

이 책에도 여성의 정책제정운동의 성과를 비롯해 제118대 총선에서의 여성계의 대변, 정당들의 반응, 위원회들의 선거행태, 여성정책제정운동의 실태 그리고 의회당으로는 비례제 대의원위원의 정책활동이 자기이야기처럼 담고 있다.

제118대 총선은 여성들이 광대동원, 선거대책위원회 등으로서 정당의 대변인 등으로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치루어졌다. 각지방에 치환하기 위한 주력하기 위해 여성들을 앞장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들의 정책적 집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여성정리 참여의 단면으로 바라지게 되었다.

앞으로 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위하여 1년후에는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이어서 3년후에는 대통령선거, 제118대 총선 등 각급선거의 선거가 있게 된다. 이번이 전례없는 이 한층더 높은 여성대통령제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로 정책제정에서 여성이 정책참여 확대의 쪽으로 갈라져가게 되는 기대를 가진다.

이 책을 보면서 내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성정책리더십 연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책의 출판을 환영한다.

<책을 펴내며>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제17대 국회에 40명의 여성위원이 진출하면서 2004년을 '여성정치원년'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3월 2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세기 동안의 숙원이었던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2005년은 양성평등의 마지막 족쇄를 제거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전망'이란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지형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책의 출판을 기쁘게 생각한다.

역사이래 처음으로 여성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이 두 자리 숫자인 13.4%를 차지한 것은 비록 세계 평균치에는 못미치지만 세계여성의원 비율 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이나 뛰어오르게 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원내에서 여성위원이 두 개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으며, 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세로서 인구 절반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다고들 한다. '호주제폐지'와 '성매매폐지'를 이루어낸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지형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계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한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보여준 활동상은 새로운 시도로서 지형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322개의 여성단체들이 결속하여 정치관련 제도와 관행 개혁에 주력한 '총선여성연대'의 빈틈없는 활약과 비례직 50%와 선출직 30% 할당제 실시에 대비하여 100여명의 여성 후보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추천한 바 있는 80여명의 여성지도자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효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후보당선운동과 유권자운동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이 주축이 되었던 '맑은정치여성기금 운동본부'의 활동이 추가되면서 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여기에 국

민들의 열화와 같은 남성위주의 부패정치척결의지가 맞물리면서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들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초선의원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정치문화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한껏 제고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 책에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역사를 비롯해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계의 대처, 정당들의 반응, 유권자들의 선거형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비판, 그리고 선출직 또는 비례대표의원의 정치행로의 자기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제17대 총선은 여성들이 당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정당의 대변인들로서 여성들이 나서서 치른 선거였다. 각 정당이 처한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을 앞장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들의 정치력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제 여성정치참여의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다.

얼마있으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필두로 1년 후에는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이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제18대 총선 등 각급 의회의 선거가 있게 된다. 이번에 펴내는 이 한권의 책은 여성대통령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한국의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만들어 내기까지 필자들을 비롯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실무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책의 출판을 환영한다.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지형 :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전망 (가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계의 활동을 정리하여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기초 자료 및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원고마감 : 2005년 1월 15일경

원고매수 : A4용지 10p. 10매 내외

출판사 : 사회와 연대

단행본 목차

chapter	제목	저자
	인사말	박영숙(여성재단 이사장)
	서론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1장	여성과 정치세력화운동	이정옥(대구카톨릭대 교수)
2장	한국에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	윤정숙(여성민우회 대표)
3장	17대 선거에 나타난 다양한 시민운동	손혁재(참여연대)
4장	17대 총선에서의 제도개선 운동 - 총선여성연대 활동 중심	조현옥(여세연 대표)
5장	17대 총선에서의 후보추천 운동 - 맑은넷 활동 중심	남윤인순(여연대표)
6장	17대 총선에서의 기금모금 운동	강경희(여성재단 사무총장)
7장	17대 총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선거 행태	김민정(서울 시립대 교수)
8장	여성유권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오유석(성공회대 연구교수)
9장	17대 총선과 정당에서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활동	김원홍(여성개발원)
10장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	김경애(동덕여대 교수)
11장	케이스 1 선출직에서의 여성정치인	이혜훈(한나라당)
12장	케이스 2 비례대표직에서의 여성정치인	홍미영(열린우리당)
13장	좌담 : 17대 총선의 성과와 전망	여성운동관계자들(김상희, 남윤인순, 조현옥, 손봉숙, 외)